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배본 전문업체 여산미디어 서현석 대리의 하루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도심의 뺨뺨한 차량 사이를 오토바이로 질주하며, 200여 곳의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서적들을 각 언론매체로 배달하는 사람이 있다. ‘기업과 언론매체를 잇는 다리’라는 모토로 창사 1주년을 맞은 여산미디어의 서현석 대리(25)다.

현재 여산미디어가 하는 일은 출판사로부터 각종 신간서적을 들여와 언론매체별로 분류해 2박3일 안에 직접 배달하는 것. 또한 발송된 책이 매체에 소개됐을 경우 날짜와 면수를 체크해 팩시밀리로 출판사에 전송하는 등, 단순한 심부름센터가 아닌 ‘전문미디어’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러시아워 전까지 일간지 발송 끝내

창사 멤버로서 1년 동안 외근 발송직을 맡아온 서대리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 어둠이 깔려 있는 시각, 종로구 사간동에 위치한 사무실의 문을 여는 새벽근무조는 서대리까지 모두 3명. 소형승합차의 운전자를 맡은 채수일 실장, 영업직을 맡고 있는 민창기 대리과 힘을 합쳐 기백권의 책들을 차 뒤편에 싣는다. 러시아워가 되기 전까지 세사람이 해야 할 일은 서울시내의 모든 신문사에 이 책들을 돌리는 일이다.

이른 시각의 신문사 편집국은 대부분 출근 전이다. 경비실의 나이 지긋한 직원들이나 청소하는 아낙들에게 큰소리로 인사하며, 서대리는 온갖 책과 서류철과 메모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적요한 편집국으로 뛰어들어간다. 팩시밀리를 통해 내외신 기사만 빼격거리는 기계음을 내며 들어오고 있는, 간혹 당직 기사 혼자 텔레비전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곳의 빈 책상들 사이를 누비며, 서대리는 제 집인 양 정확히 담당기자들의 책상을 찾아 책을 내려놓는다. 지금이야 기자들의 한자 이름까지 줄줄 외고 있지만 처음에는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고 물을 만한 사람도 찾지 못해 난감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는 “무조건 책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을 찾아가면 곧 출판, 문학 담당기자의 자리였다”고 한다.

50~60군데 언론매체를 오토바이로

8시가 지나면 벌써 시내쪽으로 차량이 밀리기 시작한다. 쾅쾅한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는 거리를 되돌아오는 길은 서두를수록 좋다. 늦어도 9시 전에 본사로 돌아가야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오토바이 발송을 시작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없어 배낭에

책을 담고 다녔다. 가까운 거리는

뛰어서, 먼 거리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

지리도 모르는 서울 시내를

헤매다녔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 언론매체의 위치를 물으면

그 자리에서 약도를 쓱쓱

그려낼 수 있을 만큼 ‘도가 텃다.’

오토바이로 도시를 질주할 때면

가슴이 툭 트이기도 한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들은 장충동과 용산을 아우르는 ‘강남지역’, ‘광화문지역’, ‘합정·마포·여의도 지역’ 등 세 곳으로 분류돼 있다. 알루미늄 새시로 짠 큼직한 책상자에 이 책들을 담아 오토바이 뒤에 싣고 출발한다. 서대리가 하루에 들르는 언론매체는 줄잡아 50~60군데. 점심은 시간에 맞춰 아무곳에서나 혼자 해결한다. 하루에도 몇번씩 본사로 돌아와 책을 싣고 가야 하는데, 특히 동선이 긴 강남지역으로 나가는 날이면 진이 빠지고 만다. “오토바이로 도시를 쾅쾅 질주하는 느낌은 한마디로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지만, 하루일을 마치고 나서 머리를 감으면 온통 구정물이다. 코를 풀면 검댕 같은 먼지가 묻어나고 목구멍도 따끔따끔하다. 서대리는 거의 두 시간에 한번꼴로 세수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모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같아서”다.

발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은 대략 6~7시. 저녁을 먹고 나면 바로 책 분류와 포장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직원이 매달려야 할 만큼 방대한 작업이다. 언론매체를 지역별로 분류한 책꽂이와 일간지용 테이블에 천여 권의 책을 질서정연하게 쌓는 이 시간이면 다섯 평이 채 안되는 여산미디어 사무실은 흡사 우체국을 방불케 한다. 작업시간은 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 대략 10시면 끝나지만 자정을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루에 시계를 수십번 본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오토바이도 없어서 배낭에 책을 담고 다녔지요. 가까운 거리는 뛰



도시를 오토바이로 질주하며 하루종일 언론매체를 돌고 나면 (위), 200여 곳의 출판사에서 쏟아져 들어온 책들을 밤늦게까지 매체별로 분류한다.

다니고, 먼 거리는 버스나 택시를 탔어요. 50도도 넘는 아스팔트 위에서 보낸 지난 여름은 지금 생각하니 아득합니다.”

경기도 포천이 고향인 서대리는 성장기를 인천에서 보냈다. 때문에 서울지리를 전혀 몰라 초창기에는 고생도 무척 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 언론매체의 위치를 물으면 그 자리에서 약도를 쓱쓱 그려낼 수 있을 만큼 ‘도가 텃다’. 기자들보다 먼저 신간서적을 접하지만 정작 책을 읽을 시간은 거의 없는 서대

리의 소망은 보도자료라도 먼저 꼼꼼히 읽고 나서 발송에 나설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이냐’고 간혹 물어오는 이들에게 찬찬히 설명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

“하루에 시계를 수십번도 더 봐요. 그날 발송할 물량은 남김없이 처치해야만 하니까요. 사실상 늘 과속이고, 급할 땐 인도로 달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빠르게, 정확하게.’ 그 두 가지 원칙만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한 강 기자